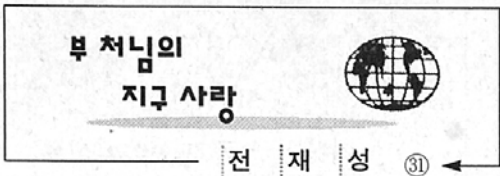


# 암·산성비·식물고사 등의 주범



◇ 각종 공장에서 비롯된 유독물질은 대기를 오염시켜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

## 대기오염 물질

부처님께서는 바람의 세계가 언제나 청정한 바람의 즐거운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만약 여기 바람의 세계가 즐거움을 수반하고 즐거움을 드러내고 괴로움을 드러내지 않는 순전한 즐거움이라면, 못 삼들은 바람의 세계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람의 세계도 괴로움을 수반할 수 있고 괴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괴로움의 세계이므로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청정한 바람을 오염시키는 물질은 주로 화석연료 연료인 기름, 석탄, 가스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특히 그 가운데 위험한 것은 이산화황(SO<sub>2</sub>)과 이산화질소(NO<sub>2</sub>) 또는 그와 유사한 물질의 발생이다.

구체적으로 이산화황은 화력발전소 및 열관리설비에서 가장 많은 50~60%가 발생하며 그밖에 일반 산업체에서는 30~40% 정도, 가정용 연

## 기름·석탄·가스연소시 발생...이산화황 가장 위험 인체내 중금속 67% 호흡 통해 유입 성인병 유발

료소비에서는 10% 정도, 자동차와 교통공해에서 5% 정도 발생한다. 거기에 비해 이산화질소는 거꾸로 자동차와 교통공해에서 가장 많은 60~70%가 발생하며 화력발전소나 열관리설비에서 20% 정도, 그밖의 산업체에서 20% 정도이며 가정용 연료에서 5% 정도이다.

이러한 이산화황과 이산화질소는 산성화하지 않고도 바로 식물의 잎의 스킴 구멍을 통해 세포속에 들어가 신진대

사를 저해하며 영양분을 파괴시키며, 동물체내에서는 기관지염을 일으키고 폐기능을 손상시킨다. 또한 가스의 상태로 공중에 부유하며 바람속의 수분과 만나 거기서 황산이나 질산을 형성한다. 이러한 황산이나 질산은 비나 안개, 눈, 서리, 이슬 등을 오염시켜 결국 무서운 산성비의 원인이 된다.

특히 교통공해에서 가장 많이 발생 하는 이산화질소는 공기중의 햇빛의 작용으로 오존(O<sub>3</sub>)을 형성한다. 특히

이때에 탄산수나 강한 햇빛이 존재하면 그 반응이 가속화되어 오존의 생산이 증대한다.

햇 빛  
이산화질소(NO<sub>2</sub>)+(O) → 오존(O<sub>3</sub>)  
탄산수

이때에 발생하는 오존은 특히 식물의 성장점에 직접 작용하여 그것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며, 동물과 인간에게는 폐기능을 손상시킨다. 그밖의 대기오염 가운데 중요한 요

소로서 플로오르의 화합물질들이 있는데, 그것은 알루미늄의 포장이나 벽돌공장, 쓰레기소각 처리에서 생겨나며, 식물들의 잎이나 침엽에 침투하여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오존층을 파괴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로 교통공해에서 발생하는 에틸렌과 같은 탄화수소계 통의 화합물질이 있는데 그것은 식물의 잎을 멍들게 할 뿐 아니라 인체에 직접 작용하여 무서운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꼭 언급해야 할 대기오염의 중요한 물질 가운데 중금속오염이 있다. 납, 카드뮴, 아연 등은 열기관, 금속포장업체, 쓰레기처리장, 중화학공업단지, 군사기지 등에서 대량으로 방출되어 공중에 부유하며, 특히 산성비에 용해될 경우 거기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은 모든 환경공통체에 작용하며 특히 생체내에 침투 축적됨으로써 항구적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현재(1994년 10월) 서울의 대기중 납오염도는 모두 환경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영등포구 문래동의 경우 0.2865ppm으로 환경기준(0.1ppm)의 3배이고, 불광동이 0.2882ppm, 신림동이 0.1691ppm, 광화문이 0.1623ppm을 기록하고 있다. 각종 암을 비롯한 성인병을 일으키는 성인들의 체내에 축적된 중금속의 67% 정도가 공기호흡을 통해 흡수된 것이라고 하니 가공할 대기오염의 실상에 격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국불교대 교수)

## '95 신행 캠페인

###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불자라면 누구나 법회때 삼귀의(三皈依)를 올린다. 거룩하신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한다는 내용이다. 삼귀의는 단순히 돌아가 의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방적이고 막연한 의지는 종교적 행위라 할 수 없다. 자신의 투철한 신심과 공경의 마음이 배어 있을 때 삼보(三寶)에 대한 의지가 종교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이는 결려한 신앙생활의 발로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불자들의 삼보에 대한 공경심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공경심이 약해진다면 아무리 훌륭한 법문을 듣고 경서를 읽어도 자신의 삶에 종교적 환희심을 주지 못할 것이다. 또 삼보에 대한 공경의 수준이 하락한 것도 제대로 불교에 의지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요인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무의식중에 타인에게 삼보를 낮춰 얘기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비하시키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

금주의 주제  
**삼보 공경**

### 최상의 귀의처·불자되는 첫 조건 형식보다 마음으로 섬기며 의지해야

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불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삼보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배경에 삼보가 청정하지 않거나 위기가 흐트러져 있는 경우는 없다. 다만 스스로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거나 아만해져 있기 때문에 삼보비하 또는 비방의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다.

삼보는 언제나 청정하다. 언제나 청정 그대로의 위로 존재하고 있는 삼보를 자신의 잣대에 비해 흐려 놓는다면 그것은 큰 죄업이 된다. 간혹 승려로서의 위의를 흐트리는 스님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보여지는 의형을 두고 거북스런 언행을 했다면 그 구업은 결국 자신의 것으로 돌아 오게 된다.

보다 불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청정심을 체득해 나가야 한다. 자신의 일방적인 견해로 남을 해롭게 하는 것도 큰 죄업이 될 것인데 삼보를 공경하지 않는 언행을 일삼는다면 그는 불자로서의 기본자세가 안되어 있다고 봐야한다. 입으로만 부르는 '삼귀의'는 노래에 불과하고 마음으로 정성껏 섬기며 의지하는 삼보는 신앙생활의 환한 거울이자 지침임을 잊지 말자.

### 군법당에 법사님 모셨으면...

설법자료·테이프도 부족  
저는 경기 연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군법당 정립사에서 군중법으로 복무하고 있는 박경재입니다. 저를 비롯해 몇명의 군중법들이 막연히 신심 하나만으로 법당을 꾸려가고 있지만 저희 법당에 설법을 해주실 법사님이 계시지 않아 법회를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소 현대불교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지만 법회를 이끌어 가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법회의식과 예절 등은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지만 설법을 할 만한 책이나 자료가 없어 군법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군법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더 전하기 위해 여러 불자님들께 설법자료나 설법 테이프 등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가르침과 격려 보내주시길 기대합니다. 경기도 연천군 군법당 원림리 사서함 92-21호 정립사 군중법 박경재



◇백련이 초입을 짓고 수도하던중 그 장소에서 흰 연꽃이 솟아나와 창건했다는 백련사는 오랜 역사의 굴곡 속에서도 끊임없는 법통을 이어오고 있다.

### 남 돕는 것이 참불공 성철스님문도회 모금운동

"부처님께서는 오직 중생을 이롭게 하고 도와주는 것이 참다운 불공이라고 하셨습니다. 몸과 정신으로 또 물질로 남을 돕는 것이 모두 불공입니다." 성철스님의 '남 모르게 남을 돕자'는 말씀이다. 성철스님문도회는 이같은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이웃돕기 자비'의 모금 운동을 소리없이 펼치고 있다.

올해는 유난히 사건사고가 많았다. 다리가 무너지고, 가스가 폭발하고, 백화점이 내려앉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 사고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우리 이웃을 위해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불자들이 다음 구좌로 성금을 보내주시며, 송금자 이름 뒤에 '자비'라고 적어 넣으면 된다. (0539)32-7300 (국민은행: 658-01-0238-800·예금주=해인사 백련암)

### 통일 준비하는 마음가짐 btn 구룡사서 초청특강

머지않은 장래 통일시대를 맞을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21세기 통일을 준비하는 불자들의 마음가짐을 제시해주는 강연이 열린다. 불교텔레비전은 오는 13일 오후 12시30분 양재동 구룡사 문화회관 1층에서 정용길 동국대 행정대학원장을 초청, '통일시대 불교인의 역할'을 통해

## 신행수첩

불자들이 하여금 사회에서 실현해야 할 길을 제시해 준다. (02)3270-3387

### 수도도량 이름난 백련사 두레문화기행 26일 답사

덕유산 중심부의 해발 900m 고지에 자리한 백련사는 옛부터 수도장으로 이름난 절이다. 6·25때 소실됐으나 1961년 재건된 백련사는 관광볼에 힘입어 본격적인 중창불사가 진행돼 현재는 대웅전을 비롯 원통전, 선수당, 보제루 등 적지 않은 사찰규모를 갖추고 있다. 두레문화기행이 이곳 백련사로 오는 26일 불교유적답사를 떠난다.

유구한 역사도 그렇지만 일주문을 들어서면 매일당 부도와 서산대사의 수계사인 일선대사 부도가 눈길을 끈다. 특히 대일당 부도는 대석과 탑신으로 구성된 간단한 석조형부도로써 정상에 복련을 조각한 보주(寶珠)가 놓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여관촌에서 백련사까지는 6.2km 거리인데 계류에 따라 잘 닦아진 외길이므로 초행자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백련사가 지 오는 도중엔 인월화상이 인월사를 창건하고 수도하였다는 인월담이 있으며, 구천폭포를 지나 이숙대에 이르면 울창한 숲사이 계곡의 거임을 타고 떨어지는 폭포소리가 장관이다. (02)712-5812

### 석굴입엔 신리의 미소가 부산불교교육원 사찰 강좌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고 했는가, 역으로 백견이 불여일문(百見不如一聞)이면 어떨까? 보고 들은, 듣고 보던 사전 지식이 있다면 무슨 일에도 수월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기회를 부산불교교육원이 제공한다. 아마 강의를 듣고 석굴입을 보면 통일신라의 이상적인 미소와 인물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 동해를 보고 앉아서 왜구를 막고자 하는, 본조의 방향을 보고 국토보존을 열망하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즉 미술적 관점으로만 접근하였기에 어렵고 전문적으로만 느꼈던 문화재를 부산불교교육원은 불교적 관

으로 접근, 선조의 삶을 쉽고 자세하게 이해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세계관·삼론·종가·한국담의 이해, 불보살의 상호와 신앙, 지옥세계, 석등 기타 석조물의 내용으로 매주 첫째 월요일 강의로 불교·민족사상을 통한 사찰에 담긴 뜻을 되새겨 보자. (051)466-4080

### 민족의 정신적 고향 불교 청년여래회 불교학당 열어

우리민족에게 있어 역사와 불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불교는 우리역사에서 민족의 정신적 귀의처로 자리잡아 왔기 때문이다. 청년여래회가 청년불자들의 역사교육을 고취시키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불교학당을 열었다. 이번 불교학당에서는 만화가 박재동씨의 '일본문화의 침투와 대책' 한승원씨의 '불교문화세계' 등 모두 10개의 강좌가 열린다. 강좌는 매주 화·목요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02)725-8818

#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발기인 대회 및 창립준비위원회 결성식 공고

귀의 삼보하옵고 1600년의 역사와 민족 종교로서의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재가불자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신도조직인 중앙신도회의 창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해 사부대중 모두의 원력으로 시작된 개혁불사를 통해 변화를 시작한 조계종의 건강한 주체로서의 재가불자의 결집을 위한 이 자리에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불기 2539년 11월 11일 (토) 오후 3시
- 장 소: 조계사 대웅전
- 식 순: 식전행사 : 길놀이, 사물놀이-오후 2시  
본행사: 발기인 대회 및 창립준비위원회 결성식-오후 3시  
뒷풀이: 풍물놀이
- 법 어: 송월주 스님(총무위원장)
- 유의사항: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기인 동참 자격  
개혁차원의 새로운 전국 신도대표기구 결성 취지에 찬동하고 신심과 애중심이 있으며 신행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교구 본말사의 전현직 신도회장 및 임원과 전국규모의 직능 신행단체의 본부 임원 및 지부 지회장, 연합 신행단체의 중앙본부 임원 및 산하단체 임원과 지역 및 개별 신행단체의 임원, 기타 발기 취지에 동참하는 개별 인사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앙신도회 창립 발기인 동참 보시금  
1인당 ₩100,000원 이상(이 보시금은 중앙신도회 결성을 위한 준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발기인 승락서 및 동참 보시금 접수  
접수처: 포교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23-01-0533-326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주소: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포교원(☎ 110-170)  
전화: 720-7060-4 / 팩스: 720-7065  
동참보시금 발기인 대회 당일 접수 가능

##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결성준비 실무위원회